

가정상담

2004

11

통권 255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건축의 해

4 • 이 달의 메시지

5 • 특별기획 | 이혼제도 개선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 전 상담제도 의무화

11 • 칼럼 결혼과 인생 (23)

12 • 가정폭력상담실

14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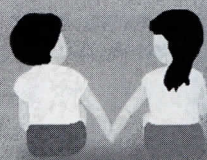
15 • 인터넷 상담

16 • 상담소 소식

17 • 상담통계

18 • 지부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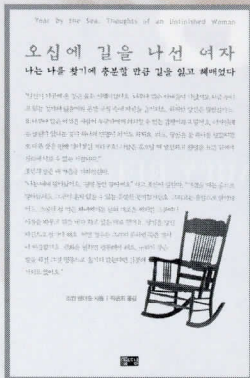
19 • 지부 소식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
부부평등과 자녀·노인의 복지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

조안 앤더슨 지음 박은희 옮김.
따님, 2004년 발행.



한참을 지나온 길들이 갑자기 낯설어질 때, 자신이 가야할 길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 왔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정이라는 '동지'를 더 이상 행복의 보금자리로 자부할 수 없는 중년의 여성들. '동지' 속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자신의 곁을 떠났고 오랜 세월을 같이 한 남편과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터운 막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낀다. '빈 동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은 이제 가족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와 상실감이 교차하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진다.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는 남편과의 별거를 계기로 씩여진, 저널리스트이며 어린이책 작가로 활동해 온 조안 앤더슨의 년픽선이다. 20여 년 동안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족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살아온 조안은 그녀가 지켜온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흔적도 사라졌음을 발견한다. 예전의 '꾸밈없고 모험심 많고 본능에 충실하고 잘 웃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삶의 회의를 숨기면서 살아간다. 허물없는 여자친구들이 암울한 날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현실에 매몰돼버린 자아의 조각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임을 깨닫는다. 친밀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감을 연장시킬 뿐인 것이다. 그녀가 된 삶이 되던 해 가을, 남편이 먼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나 그녀는 함께 가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케이프코드의 작은 어촌에서 홀로 생활을 시작한다.

작은 어촌에서 해변과 숲을 산책하며 자연과 친숙해지며 어부들의 소박한 삶을 대하면서 그녀는 인생의 항해에서 도착 같은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계속해서 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간다. 생계를 위해, 또는 치열한 자기성찰을 위해 생선가게 점원과 조개잡이로 일하면서 어촌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던 중에 조안 에릭슨이라는 92세의 여인을 만난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의 부인이자 학문적 동지로 알려진 노부인의 메세지는 그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준다. "많은 여성들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믿어요. 여자한테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변명이 되기도 하지요. 당신은 문 하나를 닫았지만 또 다른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라구요! 사람은 홀로 일 때 발전하고 환멸을 느낀 뒤에야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해요. 어떤 경우든 그러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변화를 원하면 행동해야 해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말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안은 자신의 삶이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남편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랑은 누구를 소중하게 품는 것과 함께 자유롭게 놔둘 때 비로소 꽃피는 것임을 깨닫고 아이들의 떠남도 담담히 받아들인다.

여자 나이가 오십 세에 이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시기는 상실의 슬픔도 있지만 아내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내가 누구이며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진정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오십 세에 과감히 혼자서 길을 떠나 삶을 탐구하는 조안 앤더슨의 모습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다.

김동자 도서실장

상담소에서 한 일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한 워크샵



▲결혼아카데미



▲11월 4일 열린 2004년 정기 후기 이사회

교육원에서 성향리에 진행 중인 강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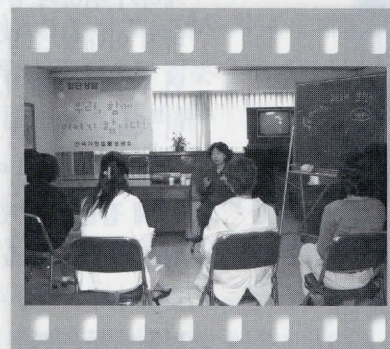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실



▲부부캠프



▲아내 모임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

2004년 10월 자원봉사자

후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순임, 강신일, 강영봉,
고광래, 오영순, 유향자,
이상옥,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원숙,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고옥주, 김인숙,
김정혜, 박선화, 백미도,
신문혜, 심무순, 안현숙,
유문숙, 이승민, 임현정,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조경희, 김지현, 이경실, 김혜용,
엄희정, 임은하, 유경내, 이정연,
이인영, 김기혜, 김지희, 정경미,
서경희, 진선임, 방수경, 공선영,
박세희, 민경아, 김영, 김미림,
강미영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장보식, 신은정, 안미영, 김경환,
양문식, 김병주, 김서현, 강윤미,
장정환, 박용석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심미숙, 고영소, 고미진, 천정환,
박찬규, 김재현 변호사 님

일반회원이 되신 분
문명경, 김희경, 변영인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김병주, 천정환,
오은경, 강윤미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석희 18, 25기